

# 음식 메뉴 추천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프로젝트명 : MENU PASS

팀명 : 도원결의

## Table of index

- 01. 프로젝트 소개
- 02. 프로젝트 멤버 및 기능 담당
- 03. 프로젝트 플랜
- 04. 데이터베이스 설계
- 05.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 06. 프로젝트 기술 스택
- 07. 프로젝트 후기
- 08. END

01

# 프로젝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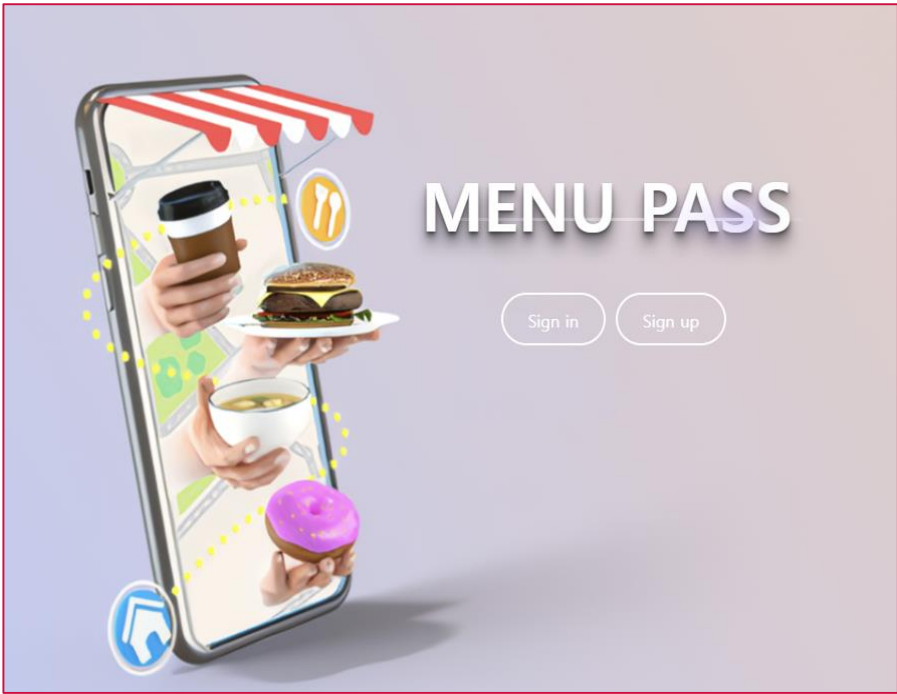
# MENU PASS 소개

"MenuPass"는 사용자들에게 식사 메뉴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를 통해 식사 결정을 보다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품질과 신뢰성 있는 음식점을 선별하여 검증된 리스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믿을 수 있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02

## 프로젝트 멤버



김호람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 오늘의 날씨 API
- CSS

# 03

## 프로젝트 플랜

# 프로젝트 기간

## 2023.07.21~2023.08.31



### 1. 프로젝트 계획

- 아이디어 도출 및 기획

### 2. 설계

- ERD
-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 데이터베이스

### 3. 개발

- 기본 모듈 구현
- 프론트엔드 : UI 및 UX 구현
- 백엔드 :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필요한 기능 구현

### 4. 테스트 및 보완

- 통합 테스트 : 모듈 간 상호작용 및 동작 확인
- 통합화면 프론트엔드 수정

### 5. 프로젝트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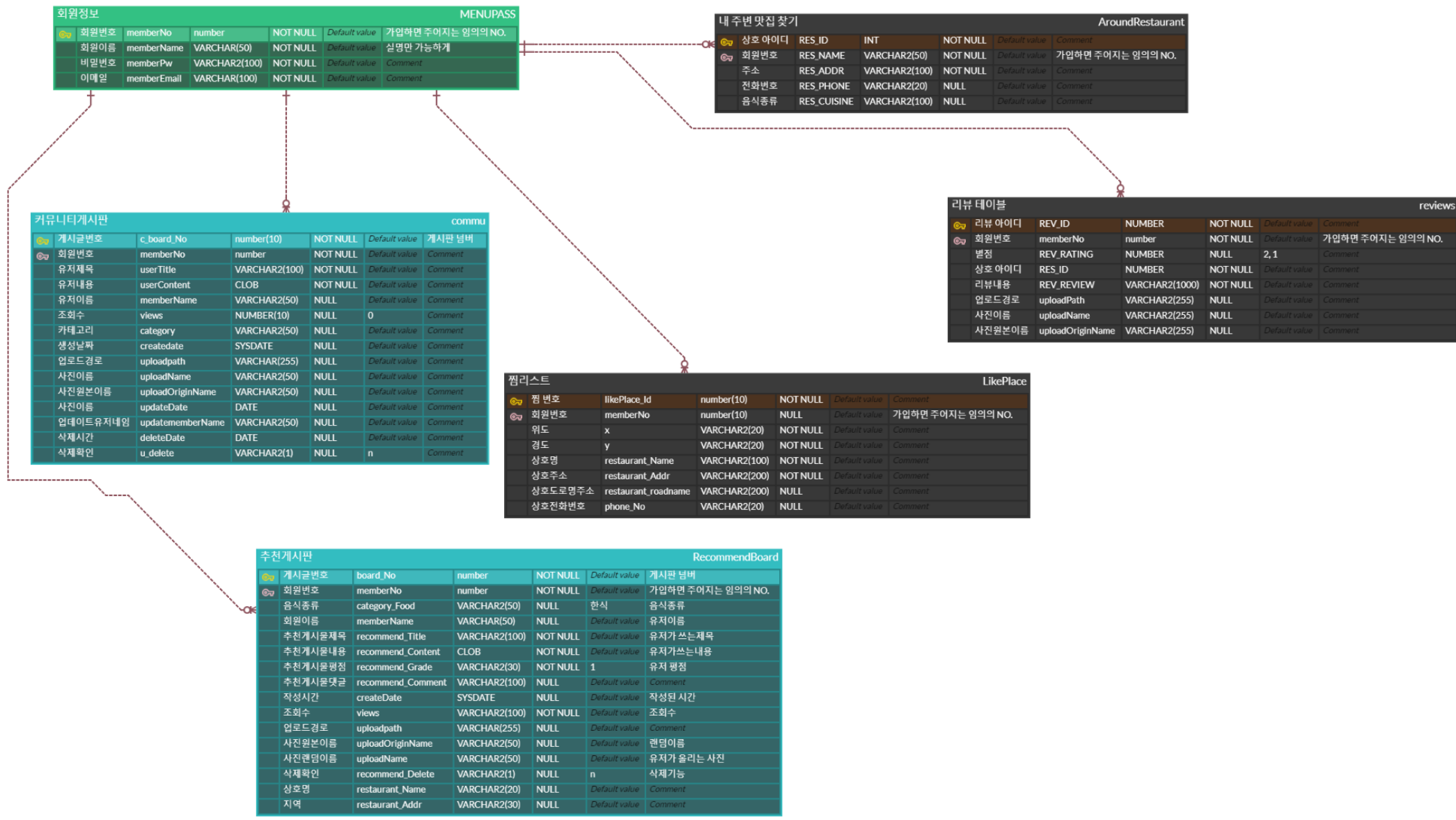




# 04

## 데이터베이스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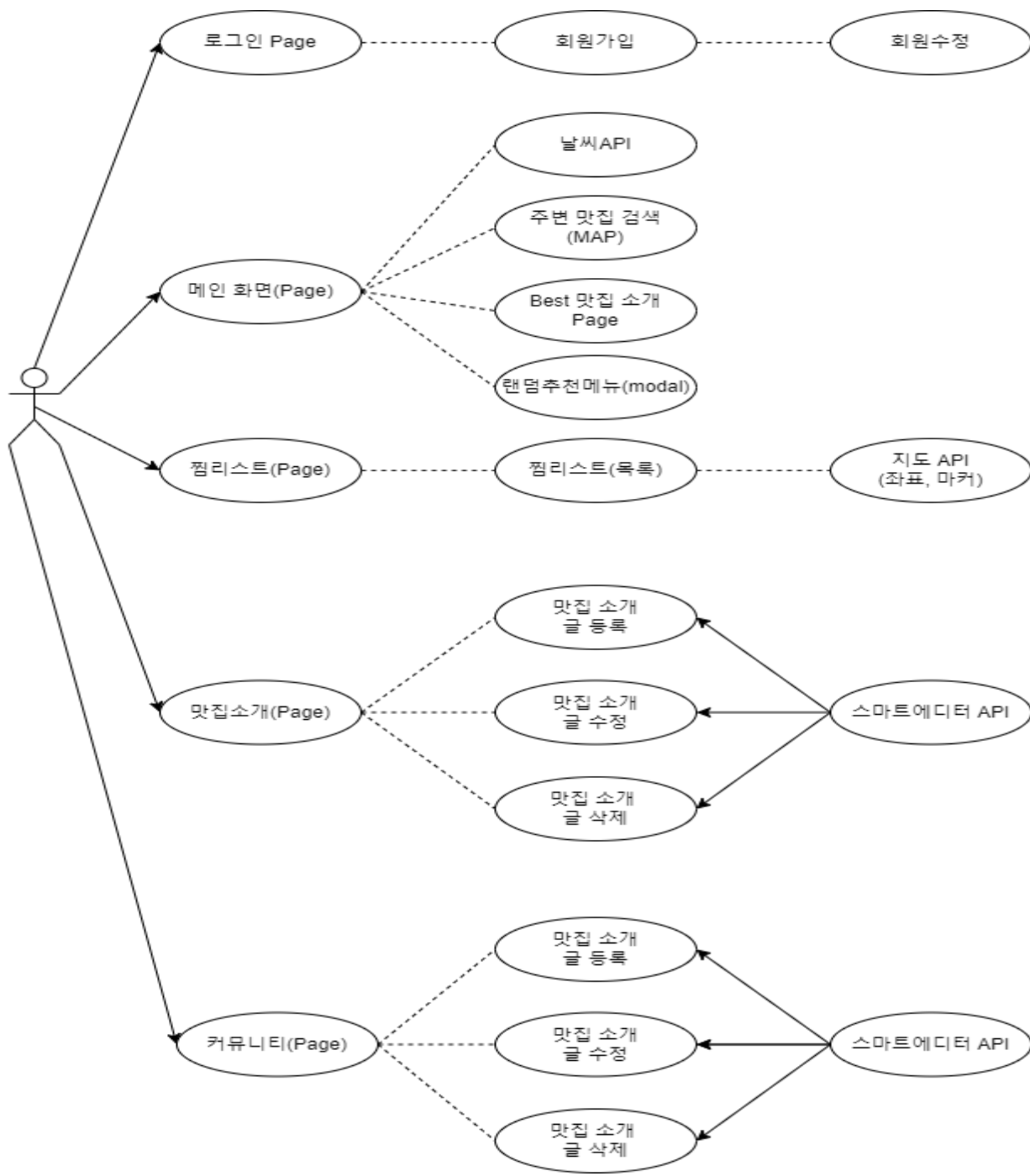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 설계



# 05

##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 06

## 프로젝트 기술 스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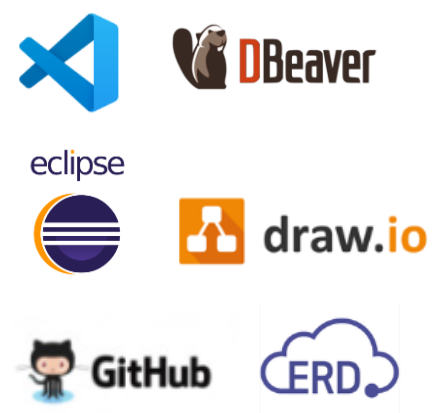
FRONT END



BACK END



TOOLS



API



---

07

후기



김호람

이번 프로젝트 경험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API 활용과 새로운 개발 영역에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부적인 디테일에 집중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결과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느꼈습니다.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인경

저는 카카오 API를 활용하여 키워드로 장소를 검색하고 목록으로 표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를 찜할 수 있는 기능과 찜한 장소만을 지도에 마커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찜 목록을 확인하고 삭제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API 커스텀 부분은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api를 커스텀하여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험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를 거치면서 API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프로젝트의 경험은 개발자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용범

관리자가 올리는 관리자 커뮤니티와 유저가 올리는 유저 커뮤니티를 구현하였고, 게시판 특성상 글쓰기, 수정, 삭제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같지만 다른 시각적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메인 페이지의 관리자 커뮤니티의 게시물 슬라이더 기능과 각자의 코드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게시판을 두 가지 만들면서 기능은 비슷하지만 각자 다른 모양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각자 개성이 많은 팀원들의 코드를 정리하며 통합하는 과정에서 코드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 방식 코드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때에도 힘들지만, 재미있는 코드 통합 부분을 맡아서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최은경

어렵고도 부족한 것이 많았던,,

마지막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았으나

부족함이 많아서인지 기능들을 하나씩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기억으로만 남지만,, 그래도!!

팀원들(+선생님)과 서로 소통하며 도움도 받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갈 수 있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짧고 긴 6개월의 시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나온 결과를 위해 좋은 자리에서 본인이 이루고 싶었던 일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